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3차(중간발표) 지원심의 총평

- 사업유형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3차(중간발표) 서류 및 인터뷰심의
- 심의분과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심의일시 : 2019년 9월 3일(화) 14:00~18:00
- 심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및 실험무대
- 심의위원 : (가나다순) 계성원, 김서진, 유민희, 한지영, 허용호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젊은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창작 활동과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강조점이 두어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눈에 보이는 성취 혹은 창작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중요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사업은 ‘조사·연구(강의, 네트워킹, 멘토링, 개별리서치) → 중간발표(실연-쇼케이스) → 심화연구(멘토링) → 최종 발표(공연)’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사업인 것이다. 이 과정 중에서 ‘중간발표(실연-쇼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이번 심의이다. 지원자들이 ‘조사·연구(강의, 네트워킹, 멘토링, 개별리서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자리인 것이다.

이번 심의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서류심의(전수검토)가 첫 번째 단계이고, 실연이 두 번째 단계, PT 및 인터뷰 심의가 세 번째 단계였다. 3단계에 걸친 심의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곡/지휘, 전통극, 연희, 소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심의한 것이다. 서류심의(전수검토)의 경우 5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두 번째 단계 실연과 세 번째 단계 PT 및 인터뷰 심의에서는 4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했다.

서류심을 중심으로 한 첫 단계 심의는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5명의 심의위원 각각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었다. 이 검토는 제출된 서류들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고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원자들을 대면하여 심의하였다. 지원자들의 실연과 PT 발표, 그리고 인터뷰를 한 것이다. 제출 서류에서 모호했던 부분, 실연과 PT 발표에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 역시 이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3단계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기준이 된 심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조사·연구의 충실성’, ‘예술적 우수성 및 차별성’,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성취도 및 파급효과’가 그것이다. 이러한 심의 기준을 두루 고려하면서 본 심의위원들이 특별하게 살펴본 것은 ‘과정의 성실성과 치열함’, ‘젊은 예술가다운 패기와 도전의식’, ‘고민과 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성’ 등이었다. 이는 ‘신진 예술가(기획자)의 창작 연구 및 작품 제작, 기획 실현 과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심의대상이 된 3명의 신진 예술가들은 모두 성실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조사·연구의 성과를 어떻게 작품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지원자가 있었고, 최종 공연 작품의 성격이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지원자도 있었다. 치밀한 준비 과정의 결과에 대하여 기대를 하게끔 만든 지원자 역시 있었다. 그렇게 지원자들 사이에 조금씩의 편차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원자들은 성실성과 진지함을 공통으로 보여주었다. 젊은 연주자 혹은 연희자가 창작자 혹은 공연예술가로 진화하는 과정이 그대로 포착되기도 해서 흥미로웠다. ‘신진 예술가(기획자)의 창작 연구 및 작품 제작, 기획 실현 과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 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본 심의위원들은 대상자 3명을 모두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의 ‘젊은 최종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의 지향 자체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는 점도 이러한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한몫했다. 지원자들의 성실성과 진지함에 기반 한 준비 정도가 높았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지원 결정과 더불어 이번 심의에서 주력한 또 다른 한 축은 예산 심의였다. 심의 위원들은 신청한 예산 항목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의했다. 신청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세부 항목들을 검토하면서 항목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로 검토된 것은 ‘과도하게 책정된 항목’과 ‘필수적인데 빠진 항목’ 등이었다. 본 심의 위원들은 최종적으로 공연화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 작업을 했다.

본 심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은 지원 대상자들의 성실하고도 치열한 노력을 높이 샀다. 그 준비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후 최종 작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점도 말하고 싶다. 이번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은 ‘지원 대상자들의 노력에 부합하는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멘토링을 이후에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피력했다. 이는 이번 심의가 갖는 ‘중간 점검적 성격’이나 이 사업의 특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조사·연구에서 중간발표, 그리고 심화연구와 최종 발표로 이어지는 도정을 염두에 두면서, 중간발표 이후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북돋울 것은 북돋아 주고, 조언할 것은 조언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또 다른 주제는 예산 편성의 문제였다. 지원 대상자들의 공연 작품에 대한 고민과 준비 정도와 비교해 볼 때, 예산 편성의 양상은 아쉬움이 많았다. 작품의 창작 혹은 공연의 준비와 예산 편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은 곧 작품의 구체화 정도와 맞물린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원 대상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난 예산 편성의 비구체성과 애매함은 심의위원들에게 많은 아쉬움이 들게 했다.

이 사업이 신진 예술가(기획자)의 창작 연구 및 작품 제작, 기획 실현 과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작품 자체에 대한 창작과 고민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작품 제작과 기획 실현 과정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쉬운 것이다. 더불어 ‘아티스트피’ 항목의 경우 더 당당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종 작품의 완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창작·연출·연희 사례비’를 세우지 않거나 많이 부족하게 설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지원 대상자 스스로에 대한 사례비 책정은 낯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정당한 역할에 맞는 사례비를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것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머리와 가슴에 담고 있는 창작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꽃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 본 심의위원들은 그 꽃을 피워내는 도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고 있다. 본 심의위원들은 젊은 예술가들이 머리에 담고 가슴에 품은 씨앗들이 주목할 만한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 핀 꽃들을 일회적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감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인다. 오랜 노력과 치열한 고민의 산물을 더 많은 사람이 지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틀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틀은 젊은 예술가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예술 정책 기관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9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